



KIA 김상현이 13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앞서 진행된 타격훈련에서 쓰러비를 들고 스윙연습을 하고 있다.

호랑이, 쓰러비로 방망이 불 붙인다



조범현 감독 타격 살리기 안간힘 마츠바라 코치 빗자루 훈련 도입

‘타격’이 힘겨운 4월 나기를 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화두가 되고 있다. KIA는 지난해 팀타율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마운드의 힘으로 페넌트레이스 우승과 한국시리즈 동반 우승을 일궜다. 2연패를 겨냥하며 겨우내 방망이를 들었지만 KIA 타율은 올 시즌도 변함없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예상치 못한 선발진의 부상과 부진으로 타선의 침묵은 더 크게 느껴졌다. 개막 이후

제때 방망이가 터지지 않으면서 1~2점 차의 피말리는 경기가 계속됐고, 마운드 전력 소모도 컸다. 새 용병 맷 라이트의 합류로 마운드의 급한 불을 끄지만 조범현 감독의 시름은 여전하다. 침묵하는 타선때문에 속앓이를 했던 KIA는 화력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스트럭터 마츠바라 코치의 조기 합류도 화력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당초 5월 입국을 계획했던 마츠바라 코치는 조범현

감독의 긴급 요청으로 일정을 앞당겨 9일부터 팀에 합류했다. 휴식일이었던 12일 야수진들을 불러 특별 타격훈련을 진행한 조범현 감독은 난적 두산과의 대결이 벌어진 13일에는 훈련 시작에 앞서 선수단 전체 미팅을 소집했다. 조범현 감독이 강조한 것은 역시 ‘타격’이었다. 조범현 감독은 “미팅에서 타자들에게 중점적으로 얘기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스윙들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력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한 도구도 동원됐다. 마츠바라 코치의 요청으로 커다란 쓰러비가 배팅 박스 앞에 자리 잡았다. 마츠바라 코치는 배팅연습에 앞서 안치홍에게 빗자루를 휘두르라고 주문했다. 안치

홍은 몇 차례 빗자루를 휘두른 후 배팅 박스에 들어섰다. 배팅 순서를 기다리던 김상현도 쓰러비를 들고 연습을 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영성해 보이는 쓰러비 스윙이지만 마츠바라 코치의 깊은 뜻이 있었다. 마츠바라 코치는 “보기에겐 쉬워보이지만 쓰러비의 경우 위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팔로만 스윙을 할 수 없다”며 “허리를 받치고 안정된 스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쓰러비 스윙에 도전한 안치홍은 “무거운 쓰러비를 휘두르면 무게 중심이 저절로 뒤에 가고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글: 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또 터졌다

홈런 포함 3안타... 초반 슬럼프 탈출

‘추추 트레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이틀 연속 홈런을 터트리며 초반 부진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추신수는 13일(한국시각) 미국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1회 솔로 홈런을 날렸다. 전날 디트로이트와 경기에서 시즌 첫 홈런을 때리며 타격 감각을 되찾은 추신수는 이날도 좋은 페이스를 이어갔다. 네 타석에 들어서 볼넷 하나를 고르고 3타수 3안타를 때렸다. 덕분에 한때 0.111까지

내려갔던 타율도 0.250(24타수 6안타)으로 끌어올렸다. 두 경기 연속 때린 홈런 덕분에 초반 슬럼프를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추신수는 9~11일 3경기에서 안타를 치지 못하는 등 개막 후 5경기에서 2안타밖에 치지 못하고 있었다.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지난해 9승을 올린 투수 리치 하든을 맞았다. 초구 바깥쪽 지구와 2구 높은 직구를 골라낸 추신수는 몸쪽으로 파고드는 시속 145km짜리 직구에 힘차게 방망이를 들렸다. 중심에 정확하게 맞은 공은 우중간으로 날아가 펜스를 훌쩍 넘겼다. 이날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연장 10회 벨슨 크루즈에게 2점 홈런을 얻어맞아 2-4로 졌다. 클리블랜드(2승5패)는 4연패에 빠졌다. /연합뉴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 임수혁 자녀에 장학금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손민한)는 오랜 투병생활 끝에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 임수혁의 자녀에게 4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프로야구 8개 구단 선수가 마련한 것으로 임수혁 자녀의 학비로 쓰도록 고인의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손민한 회장은 또 작년 12월 임수혁 돕기 기부행사 등을 통해 모은 성금과 학원 수강권도 함께 전달했다. 앞서 임수혁은 지난 2000년 4월18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2루에 서 있다가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뒤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9년 넘게 투병했지만 결국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

최경주 부활... “이번엔 우승”

내일 PGA투어 출전...2년 3개월만에 정상 노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0시즌 최저 타수 부문 2위인 ‘탱크’ 최경주(40)가 마스터스에서 부활 샷을 날린 여세를 몰아 2년3개월 만에 PGA 투어 우승을 노린다. 최경주는 15일(이하 한국시각) 밤부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헤드 아일랜드의 하버타운 골프장(파71·6천973야드)에서 시작되는 PGA 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총상금 570만달러)에 출전한다. 12일 끝난 마스터스에서 나흘 내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동반 플레이를 하는 중압감 속에서도 공동 4위의 좋은 성적을 낸 최경주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이번 시즌 최저타수 부문에서 69.25타로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의 69.19타에 이어 2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한때 선두까지 올랐던 기량이 기록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2008년 1월 소니오픈 이후 PGA 투어에서 우승 소식이 없는 최경주는 지난해 22개 대회에서 9차례나 컷오프했다. 그러나 올해는 8개 대회에서 컷 탈락이 한 번도 없고 10위 안에 두 차례, 25위 안에는 여섯 차례나 들 정도로 꾸준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상금 126만 달러를 확보해 지난 시즌 전체의 96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번 대회를 예상하며 최경주를 맏트 쿠차(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승 가능성이 큰 선수로 꼽았다. 이 대회는 코스 길이가 6천973야드로 짧지만 그린도 좁아 그린에 볼을 올리기가 PGA투어 대회 가운데 세 번째로 어려웠다. PGA 투어 홈페이지는 “이 코스는 티스에서 그린 위까지 공을 올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최경주에게 딱 맞는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세계 골프랭킹 앤서니 김 10위·양용은 26위·최경주 33위

‘황제’ 우즈 변함없이 1위

메이저 골프대회 마스터스에서 선전한 한국 및 한국계 선수들이 내년 대회 출전권 확보와 함께 세계 랭킹도 대폭 끌어올렸다. 13일 발표된 주간골프랭킹에 따르면 마스터스에서 3위에 오른 재미교포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은 세계 랭킹이 14위에서 10위로 뛰어올랐다. 타이거 우즈(미국)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공동 4위를 차지한 최경주(40)의 랭킹은 43위에서 33위로 무려 10계단이나 상승했다. 지난해 PGA 챔피언십 우승자인 양용은(38)도 이번 대회에서 8위를 차지하며 세계 랭킹을 28위에서 26위로 2계단 끌어올렸다. 복귀전에서 4위를 차지한 ‘골프황제’ 우즈가 1위를 지켰으며 마스터스 우승자 필 미켈슨이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연합뉴스



서희경 VS 유소연

오늘부터 롯데마트 오픈... 우승상금 1억 걸고 108명 경쟁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맞수 서희경(24·하이트)과 유소연(20·하이마트)이 올해 처음으로 국내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14일부터 사흘간 제주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파72·6천254야드)에서 열리는 롯데마트 여자오픈 J골프 시리즈는 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원을 걸고 108명의 선수가 경쟁한다. 이번 대회는 디펜딩 챔피언 서희경과 유소연이 국내에서 올해 처음 맞붙는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멤버들이 참가해 더욱 관심을 끈다.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흥행을 이끌었던 서희경과 유소연은 작년 12월 미리 열린 2010 시즌 개막전 오리엔트 레이디스 오픈에서도 접전을 펼쳤다. 유소연은 이 대회에서 서희경과 연장전 끝에 우승,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서희경은 유소연과 함께 초청 선수로 출전한 LPGA 투어 KIA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라 명군을 불렀다. 둘은 LPGA 투어 크라프트 내비스코 챔피언십에 나란히 출전했으나 중, 하위권에 그

쳐 굳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지난 7~9일 치러진 국내 개막전 김영주 골프여자오픈에는 유소연만 출전했고 서희경은 불참했다. 롯데마트 오픈은 한국여자프로골프 ‘빅2’ 서희경과 유소연이 국내에서 처음 맞붙는 대회가 됐다. 서희경은 “호주와 미국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았다. 며칠 쉬고 나니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육심 부리지 않고 플레이를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돌아와 쉴 틈이 없이 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 출전해 5위에 올랐던 유소연은 “몸 컨디션이 좋지 않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힘든 경기를 했지만 그나마 좋은 결과로 대회를 마쳤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무엇보다 퍼트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번 대회를 위해 남은 기간 퍼트 연습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J골프와 MBC ESPN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 라운드를 생중계하며 IPNS와 네이버도 동시 생중계한다. /연합뉴스